



## 저항성잡초 방제법 확립 농업인의 고민해결 할터

한국잡초학회(회장 정봉진)는 잡초 및 잡초 방제에 관련된 분야의 학술 및 기술발전을 촉진 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1981년 6월에 설립 되었다. 현재 정회원은 281명(기관회원 23기관 포함)이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학술지를 연 4회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부정기적으로는 봄·가을에 발표초록을 발간하고 있다.

### 제1회 동아시아잡초학회 주관 개최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학회는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동안 제주 샤인 빌리조트에서 제1회 동아시아잡초학회(EAWSC : East Asian Weed Science Congress) 및 한국 잡초학회 3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잡초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한국에서 처음으로 주관하는 국제학회로서 과학자들의 활발한 연구교류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아시아 잡초과학분야 전문가 250여명 참



석을 예상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제1회 EAWSC에서는 동아시아국가의 주요 잡초과학의 공동 관심사항인 제초제 저항성, 주요 문제잡초, 잡초 방제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미래 잡초방제의 방향과 학술적 협력 모색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학술교류 중심의 국제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학회측은 내다보고 있다.

주요 의제는 '동아시아지역의 잡초학회 발전 방안'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잡초연구에 대한 잡초연구 성과(과거), 잡초 및 제초제 문제 해결방안(현재), 잡초연구의 최신 기술 개발 및 연구동향(미래)을 아우르는 분과별로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제1회 EAWSC 개최의 의미에 대해 정봉진 회장((주)동부한농 작물보호사업담당 상무)은 "아시아·태평양잡초학회는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위주로 학회가 진행되어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잡초 및 제초제 사용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같은 기후조건으로 발생하는 잡초나 사용되는 제초제가 유사하고 제초제 저항성잡초의 확산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한국이 먼저 개최를 제안하고 중국과 일본이 동의하

여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제초제 저항성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한국 주도하에 한·중·일 잡초과학자들의 협의체가 완성된것에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제초제 저항성잡초는 11초종이 있다. 이들 잡초의 발생면적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조사 중이지만 2008년도의 107,000ha보다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잡초학회는 대응책으로 별도의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제초제 저항성잡초의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 방제대책에 관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정 회장은 "제초제 저항성잡초의 대부분은 설포닐우레아계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이 제초제는 처리시기에 상관없이 벼에 안전한 관계로 논 제초제 70%이상에 파트너로 포함되고 있으며, 농촌노동력 절감을 위해 직파답이 늘어날 수 있으나 직파에 안전한 제초제가 SU계 제초제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제초제 저항성잡초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농업형태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20여종의

제초제 저항성잡초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저항성잡초의 발생 대책은 관련학회 뿐만 아니라 업계와 직접 사용하는 농업인이 공동적으로 노력하여야만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초제 저항성잡초 방제법 확립으로 농업인의 고민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적절한제초제 사용이 친환경적

이처럼 잡초나 제초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할 때인 것은 모두들 공감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전공학자들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국잡초학회도 80~90년대에는 회원이 400~500명이었으나, 점차로 줄어들어 현재는 281명이다. 여기에는 전국 농업계대학에서 잡초를 가르키는 농학계열의 학과가 통폐합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신진 연구원들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이유는 농촌진흥청에서 작물보호분야 연구부서도 통폐합되어 잡초관리과가 해체되고 연구실로 운영되는 것도 실례가 될 수 있다.

이에 학회 관계자는 “잡초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같이 농약이 독약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한 작물보호 분야는 계속 침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약이라는 이름도 작물보호제로 바꾸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국민의 계몽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여기에 한국작물보호협회의 역할도 중요합니

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잡초연구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동부한농에서 30여년간 농약제품개발 및 등록업무를 관장하면서 일인자로 정평이 나 있는 정 회장은 농약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농약은 군에서 병참의 역할입니다. 즉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여러 가지 밑거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언론의 잘못된 시각으로 인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농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역효과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커들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농작물에 병해충 및 잡초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농약입니다. 친환경 및 유기농업을 한다고 해도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은 막을 수 없고 그때 구원투수는 농약 뿐입니다”라며 농약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끝으로 향후 학회 운영방향에 대해 정 회장은 “최근 문제되는 제초제 저항성잡초 및 외래잡초의 효율적인 관리기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하며, 적절한 제초제 사용이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사실을 타 학회 및 소비자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회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학회 차원에서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방법도 모색할 예정입니다”라며 잡초연구분야의 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함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자는 당부의 말로 끝맺음을 지었다. ㉞

**정봉진 한국잡초학회 회장**  
(주)동부한농 작물보호사업담당 상무

## 세계 잡초분야 리더십 확보 기대

■ 제1회 동아시아잡초학회 및 한국잡초학회 3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10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데요. 기대성과에 대해 말씀 해주시지요?

먼저, 한국잡초학회의 국제적인 리더십 확보 및 국제적인 위상 제고를 들 수 있습니다. 한중일 3개국의 공동 잡초학회를 우리나라가 주관하여 개최했다는 자부심은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제초제 저항성잡초 및 외래잡초의 효과적인 방제법을 확립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 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현재 20여 종류의 제초제 저항성잡초가 발생되어 문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이들 문제잡초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국내 개발 제초제의 중국 & 일본 수출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동북3성을 비롯한 벼 재배지 피 방제용 제초제(Flucetosulfuron, Metamifop) 수출을 확대할 수 있고, 일본에는 벼 및 잔디용 제초제(Flucetosulfuron, Metamifop, Methiozolin)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잡초연구에 산업계의 활발한 연구 참여를 위한 우선과제는?

농약업계가 잡초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과제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제초제 저항성잡초 발생 확산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SU계 제초제가 혼합된 제초제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SU계 제초제가 벼에는 안전하면서 효과가 우수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저항성잡초가 유발되었습니다. 현재 농진청, 다른 대기업에서도 신농약 개발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농약 개발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제초제의 역기능을 부각시키고 있는 언론매체의 인식전환을 위한 연구책임자로서의 방안은?

언론매체와 제초제 관리 기관, 학회 또는 연구자와의 접촉 기회를 늘려서 제초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초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있는 부분을 들어 내놓고 공동연구를 시도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단체, 언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토양미생물, 소동물을 죽인다든가, 토양을 산성화 시킨다거나, 토양을 굳게 만들어 작물 생육을 어렵게 한다거나, 일견 그럴듯한 주장들이지만 막연한 실증만으로 주장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연구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서 알려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